

『표준새번역 개정판』 어떻게 번역되었는가

김창락*

1.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어려움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는 둘 다 놓친다고 한다. 그 두 마리가 정 반대 방향으로 달아날 경우에는 더욱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표준새번역』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출발하였다. 그 한 마리 토끼는 우리말 어법에 맞게 쉬운 말로 번역한다는 것이요 다른 한 마리 토끼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번역 목표 자체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만 이 두 가지 번역 원칙이 서로 대립하는 경우에 어느 쪽에 우선권을 둘 것이냐 또는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 문제를 놓고서는 의견이 여러 갈래로 갈라질 것이다. 우리말 어법에 맞는 알기 쉬운 번역이 되게 하려고 할수록 원문의 표현 방식에서 멀어지며 반대로 원문의 낱말 하나 하나와 문장 구조에 충실하려고 할수록 번역문은 어색한 표현 또는 뜻이 통하지 않는 표현이 되기 마련이다. 성서 번역의 어려움은 이 두 가지 상반되는 번역 원칙의 어느 쪽도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 있다.

우리말은 특히 해방 이후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그것은 무분별한 외국어식 표현이 우리말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말 어법에 맞는 말로 번역된 성서를 내놓는 것은 우리말을 올바른 방향으로 살려야 한다는 중대한 역사적 사명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이것은 『표준새번역』이 추구하는 그 한 마리 토끼가 가져다 줄 귀중한 열매일 것이다. 성서 번역의 목표는 여기에서 멈출 수 없다. 성서는 한 번 읽고 버리는 책이 아니다. 성서의 매 구절 구절은 철저한 주석 작업과 설교와 신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원문 성서를 참조할 겨를이 없어서 비록 번역 성서

* 전 한신대 교수, 신약학.

만을 놓고 연구를 해야 하는 사람에게 그가 사용하는 번역문이 원문의 의미와 형식에서 빗나간 것이 아니라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우리말 어법에 맞아야 한다는 그 한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으면서 번역문이 원문의 의미와 형식에 일치해야 한다는 또 다른 한 마리 토끼를 쫓는다는 것은 물과 불을 한 그릇에 담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물과 불을 조화시킬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물과 불은 양자택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둘 다가 필요한 것이다. 『표준새번역』은 시종일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쫓아 다니는 과정에서 생긴 노력의 산물이다.

이 글은 『표준새번역』의 개정판이 이전 판과 비교하여 번역 상으로 달라진 점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시함과 동시에 그렇게 되어야 할 근거를 간략하게 진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래에서 『표준새번역 개정판』을 『개정』으로, 그 이전 『표준새번역 초판』을 『구판』이라는 약어로 표기하기로 한다.¹⁾

2. 우리말 표현과 관련된 문제

2.1. 전치사 번역

서구어를 우리말답게 번역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전치사이다. “The thief came in through the window.”라는 영문을 번역한다고 하자. 창문은 출입문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틈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라고 보면 “도둑이 창문으로 들어왔다”라고 번역하면 된다. 그러면 “The thief came in through the wall.”이라는 영문은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 이 문장은 위의 문장의 번역과 같은 방식으로 “도둑은 벽으로 들어왔다”라고 절대로 번역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벽’은 본래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틈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치사 through의 의미는 영한사전에 ‘...를 통하여’로 써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기계적으로 “도둑은 벽을 통하여 들어왔다”라고 번역하고 만다. 그런데 이것은 뜻이 통하는 우리말이 아니다. 벽에 틈바구니가 없는데 그 도둑이 투명 인간이 아닌 이상 어떻게 벽을 통하여 들어왔다는 말인가? 그러므로 이 문장은 “도둑은 벽을 뚫고 들어왔다”라고 번역해야만 원문의 의미를 올바르게 전달하면서 우리말 어법에

1) 이하 『개역한글판』은 『개역』으로, 『신약전서 새번역』은 『새번역』으로, 『200주년기념 성서』는 『200』으로, 『공동번역 성서』는 『공동』으로 표기한다.

맞는 번역이 된다. “The thief came in through the firmly closed window.” 라는 문장은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창문이 닫혀 있는 그 상태로는 아무도 들어 올 수 없다. 그러므로 “도둑은 꼭 닫힌 창문을 부수고/뚫고 들어왔다” 라고 번역해야 한다. “The thief came in through the rear door.”는 “도둑은 뒷문으로 들어왔다”라고 번역하면 된다. ‘뒷문’이나 ‘창문’은 사람이나 물체가 드나들 수 있는 틈새가 마련되어 있는 물건이다. 어떤 일이 어떤 물건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것을 표현할 때에 그 일이 그 물건의 원래의 용도에 부합되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는 ‘도구/방편/수단’을 나타내는 조사(助詞) ‘으로’를 붙이기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뚫다’, ‘부수다’ 등등의 어떤 동사를 사용하여 그 물건과 관계된 사정을 표현해야 한다. ‘통하다’도 동사이지만 “도둑은 벽을 통하여 들어왔다”는 문장에서 ‘벽을 통한 다’는 무슨 뜻인지 정확하지 않다.

헬라어 전치사 가운데서 번역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 $\delta\iota\alpha$ ’이다. 전치사 ‘ $\delta\iota\alpha$ ’는 2격을 지배하기도 하고 4격을 지배하기도 한다. 헬라어 사전에 2격 지배 전치사 $\delta\iota\alpha$ 의 의미는 ‘통하여’(=through), 4격 지배 전치사 $\delta\iota\alpha$ 의 의미는 ‘때문에’(=because of/on account of)로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신약성서에서 2격을 지배하는 $\delta\iota\alpha$ 를 ‘통하여’라는 말을 사용하여 번역하면 의미가 전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개역성경』은 $\delta\iota\alpha$ 가 2격을 지배하느냐 4격을 지배하느냐를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말미암아’라는 말로 번역하였다. 놀라운 사실은 『개역성경』이 신약성서 전체에서 에베소서 4장 16절을 예외로 하고 단 한번도 $\delta\iota\alpha$ 를 ‘통하여’라는 말로 번역하지 아니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 $\delta\iota\alpha$ + 4격 명사/대명사/부정사’로 구성된 부사구를 번역하는 데는 적절하지마는 ‘ $\delta\iota\alpha$ + 2격 명사/대명사’로 구성된 부사구를 번역하는 데는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말미암다’라는 낱말에는 ‘통하다’라는 낱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인 ‘사이에 세워 중개하게 하다’라는 뜻이 전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표준새번역 개정판』은 ‘ $\delta\iota\alpha$ + 2격’ 부사구가 ‘중개자를 내세워서’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 전판에 비하여 ‘...를 통하여’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롬 1:2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2)

(‘예언자들을 통하여’는 ‘예언자들을 중개자로 내세워서’라는 뜻이다. 그것

2) 화살표 왼쪽은 『표준새번역 초판』 본문이며, 화살표 오른쪽은 『표준새번역 개정판』 본문이다. 이하 모두 같다.

은 ‘예언자들을 시켜서’와는 어감이 다르다. 또한 히 1:1,2 참조.)

고후 2:14 어디서나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엡 3:6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복음을 방편으로 본다면 ‘복음으로/복음에 의거하여’로 번역해도 될 것이다.)

엡 3:10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시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행 1:2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의 힘으로 지시를 내리신 다음에... →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개역』은 성령을 방편으로 보아 “성령으로”라고 번역함.)

*에베소서 4장 6절의 ‘δία 부사구’는 그 의미가 수수께끼 같아서 어떻게 번역해야 한다고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이시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 →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개역』은 ‘만유를 통일하시고’, 『공동』은 ‘만물을 꿰뚫어 계시며’로 번역함.)

디도 1장 3절에서는 εν이라는 전치사도 “통하여”로 번역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제 때가 되었을 때에 선포 활동으로 드러내셨습니다.” → “하나님께서서는 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처소(處所)를 가리키는 전치사 εν을 적절하게 번역하는 것도 가장 어려운 작업 가운데 하나이다. 다행히 우리말에는 처소를 가리키는 조사 ‘에’가 있다. “하늘에”, “산에”, “뜰에”, “집에”, “방에” 등등에 사용된 조사 ‘에’는 하늘, 산, 들, 집, 방이라는 명사 전체 그대로가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무엇이 존재하는 장소임을 지시한다.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처소를 표현하려고 할 때에 장소를 뜻하는 이러한 낱말의 특정한 부위(部位)를 지적해야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산에는 나무가 많다”와 “그 범 죄자는 산 속에 숨어 살아야 했다”라는 문장의 ‘산에는’과 ‘산 속에’라는 표현은 영어로는 둘 다 똑같이 in the mountain이라고 할 뿐이다. 그렇지만 우리말은 ‘숨어’ 또는 ‘박혀’라는 낱말의 성격 때문에 ‘산에서 살아야 했다’라는 표현보다 ‘산 속에 숨어/박혀 살아야

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우리말에 더 어울린다. 이 경우에 사용된 '속'이라는 낱말은 명사이다. '속'은 '산'이라는 장소의 특정한 부위를 지시한다. 이와 같이 'ev + 명사/대명사'로 구성된 부사구 또는 형용사구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속', '안', '가운데' 따위의 명사를 보충하여 번역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요 5:26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안에 생명이 있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요 11:17 나사로가 무덤 안에 있는 지가 벌써 나홀이나 되었다. →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 지가 벌써 나홀이나 되었다.

행 10:11 그 속에는 네 발 달린 온갖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 그 안에는 온갖 네 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히 9:4도 이와 같음)

요일 1:8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 요일 2:5,9,14,24,27; 3:5; 5:9도 위와 같은 유형에 속한다.)

고후 4:7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 21:12 성전 뜰 안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막 11:15도 이와 같음)

막 5:5 『구관 + 개정』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 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 대고... (*복수명사가 ev의 목적어가 되는 경우에는 '가운데'라는 명사를 첨가하기도 하며 간혹 '사이'라는 명사를 첨가하기도 한다. 막 5:3도 이와 같음.)

마 18: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ev + 사람을 지칭하는 복수형 명사/대명사'로 구성된 부사구를 번역할 때에는 거의 모든 경우에 '가운데'라는 명사를 덧붙여 번역한다(마 4:23; 18:2; 20:26; 26:5; 27:56 등등 사례는 무수히 많다).

다음 두 문장에서 똑같이 'ev + 복수명사'가 사용되었지만 번역은 전혀 다르게 해야 한다.

마 10:16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막 5:12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둘째 문장은 귀신들이 하나 하나 돼지 한 마리 한 마리의 몸 속에 들어간 것을 말한다.

요 17:13 내 기쁨이 그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골 1:27 이 비밀은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고후 13:5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빌립보 1장 6절의 *ev vnuv*은 ‘여러분 가운데서’로 번역할 수도 있고 ‘여러분 안에서’로 번역할 수도 있다. 내면적 현상을 지칭하는 경우에 ‘여러분 안에’와 ‘여러분 속에’, ‘우리 안에’와 ‘우리 속에’, ‘내 안에’와 ‘내 속에’라는 두 가지 표현 중에 어느 쪽이 우리말 어법에 더 어울리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요 15:4,7; 17:23; 갈 2:20; 요일 4:4,13,15,17 참조).

그런데 *in Christ, in Christ Jesus, in the Lord*라는 어구는 전통적 번역의 선례를 따라서 기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로 번역하였다. 이 어구들은 장소적 의미를 나타내는지 또는 관계적 의미를 나타내는지를 확실하게 가리기 어렵다. 그 의미는 주석을 거쳐야만 드러난다. 이와 유사하게 ‘*in Adam*’이라는 어구도 ‘아담 안에서’로 번역하였다.

2.2. 남성중심적인 표현을 성포괄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문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형제 여러분”(고전 1:10 등등) 하는 부름말을 붙여서 한 말은 그 곳 교회의 남자 신도들만을 상대로 한 말이 아니라 남녀 신도 모두에게 한 말이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표현을 성포괄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은 현재 세계 각국의 성서 번역의 공통적인 대세이다. 『표준새번역』도 이러한 대세를 따르기로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어떤 표현으로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는 『표준새번역 구판』의 번역 작업이 완료되는 순간까지도 집중적으로 논의하거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미루어져 왔던 것이다. 그 당시까지 나온 몇 가지 제안은 1) 형제자매 2) 형제(자매) 3) 형제^{자매} 4) 신도 5) ‘형제’에 각주

번호를 붙이고 각주 난에 ‘자매’라는 의미도 포함된다는 것을 밝히자는 것 등등이었다. 이 문제는 최종 원고를 편집하는 단계에 이르러서 급박하게 매듭지어야 했기 때문에 허술한 점이 몇몇 생기게 되었다.

마 23:8 너희의 선생은 한 분 뿐이요, 너희는 모두 학생이다. → 너희의 선생은 한 분 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자매들이다.

눅 17:3 다른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마 18:15,16,17의 ‘신도’를 ‘형제’로 개정한 것은 퇴보인 것 같다.)

막 3:34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 내 어머니와 내 형제자매들이다.

행 2:37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려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실제로 모두 남자들이기 때문에 ‘형제들’이라는 원래의 표현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벤전 2:17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신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벤후 1:7 경건에 상호 우애를 더하고, 상호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 경건에 신도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살후 3:15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신도에게 하듯 그렇게 타이르십시오. →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

2.3. 수동태로 표현된 것을 가능한 한 능동태로 바꾸었다.

『구관』에서 수동태로 남아 있던 부분을 다듬었다.

마 5:4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마 5:7 그들이 자비함을 입을 것이다. →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 5:9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마 7:7 구하여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어 주실 것이다. →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마 3:10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롬 1:17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롬 3:4; 8:36; 9:13,33; 11:8; 15:21 등등 참조.)

2.4. 어려운 낱말을 쉬운 말로 바꾸었다.

마 5:25 옥리 → 형무소 관리

마 6:4 은밀한 일도 보시는 →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마 6:6 은밀하게 계시는 → 숨어서 계시는

막 6:7 제어하는 → 억누르는

엡 5:12 은밀히 하는 → 몰래 하는

마 20:28 대속물로 내주러 → 몸값으로 치러주러

막 10:45 대속물로 → 치를 몸값으로

막 14:1 흉계를 꾸며서 → 속임수를 써서

눅 19:8 강탈을 했으면 →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눅 12:13 유업 → 유산

요 3:16 독생자 → 외아들

롬 3:24 속량 → 구원

엡 6:11 장비로 완전무장을 하십시오 →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요일 2:18 적그리스도 → 그리스도의 적대자 (또한 요일 4:3)

2.5. 절대 최상급 표현을 문법에 맞게 바로 잡았다.

마 21:9 가장 높은 곳에서 → 더없이 높은 곳에서 (막 11:10; 눅 19:38 병행)

막 5:7 가장 높으신 하나님 →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

눅 1:76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 →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

눅 2:14 가장 높은 곳에서는 →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눅 16:10 가장 작은 일에 → 지극히 작은 일에

히 7:1 가장 높으신 하나님 →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다음과 같은 것은 비교물이 있어도 절대 최상급으로 번역하였다.

마 2:6 너는 유대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않다 →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마 5:19 이 계명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마 5:19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 하늘 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2.6. 공간적 앞섬을 뜻하는 곳에는 ‘먼저’를 ‘앞서’로, 시간적 앞섬을 뜻하는 곳에는 ‘앞서’를 ‘먼저’로 고쳤다.

마 11:10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먼저 보낸다 →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막 1:2; 눅 7:27 병행)

눅 1:76 주님보다 먼저 가서 → 주님보다 앞서 가서

요 10:8 나보다 앞서 온 사람은 →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2.7. 신체 장애인들을 지칭하는 말을 순화시켰다.

마 15:30 맹인과 지체 장애자 → 지체를 잃은 사람과 눈 먼 사람과

눅 14:13 지체 장애자들 →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2.8. 어떤 사람이 “아내들이여”, “종들이여” 하고 부르면 상대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내들이며 종들이라는 어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아내 된 이들이여”, “종으로 있는 이들이여”라는 식으로 바꾸었다.

엡 5:22; 골 3:18 아내이신 여러분 → 아내 된 이 여러분

엡 5:25; 골 3:19 남편이신 여러분 → 남편 된 이 여러분

엡 6:1; 골 3:20; 요일 2:12 자녀이신 여러분 → 자녀 된 이 여러분

엡 6:5; 골 3:22 종이신 여러분 →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벧전 2:18 하인 여러분 →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벧전 3:1 아내 여러분 →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요일 2:13,14 아버지이신 여러분 →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마 1:6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2.9. 하나님을 높이어 일컫는 대명사로 사용한 ‘당신’을 다른 말로 바꾸었다.

눅 1:68,69,70,72 당신의 → 자기의

롬 1:2 당신의 → 그의

벧전 1:2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미리 아심을 따라 →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계 17:17에 두 번 사용된 ‘당신의’는 수정에서 누락되었다.

2.10. 자기를 극도로 낮추어 일컫는 대명사인 ‘저’, ‘저희’는 사용
하지 않기로 했다.

행 26:2,3,4,5,6,7,9,10,11,12,13,14,15,19,22,25,26,29 저, 제, 저희 → 나, 내, 우리

막 5:23 저의 어린 딸이 → 내 어린 딸이

눅 18:18 제가 → 내가

행 9:13 저는 → 나는

2.11. 예수의 말씀은 ‘하여라 체’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
과 같은 몇몇 경우에는 그 특수한 상황에 좀 더 어울리게 바꾸
었다.

마 3:15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여 우
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
는 것이 옳습니다.”

눅 22:66-70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그들의 공회로 끌고 가서 말
하기를 “네가 그리스도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라” 하였다. 예수께
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며, 내가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부터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자 모
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의회로 끌고 가서, 이렇게 말
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예수
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보아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
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요.”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이오?”

요 18:20-21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 놓고 세상에 말하였다…아무

것도 숨어서 말한 것은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냐? ...물어 보아라. ...그들이 알고 있다.” →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 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물어보시오. ...그들이 알고 있소.”

요 18:23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다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어라.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느냐?” →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이 밖에도 요 18:33-38; 19:10-11.

눅 13:12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그대는 병에서 풀려났소” 하시고 →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눅 3:16-17 물로 세례를 줍니다. ...오십니다. ...없습니다. ...주실 것입니다. ...태우실 것입니다. →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실 터인데, ...없소. ...주실 것이오. ...태우실 것이오.

2.12. ‘주의’(=주의)는 ‘주의(主義)’로 잘못 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로 고쳤다.

마 1:22; 2:15 등등 주의 → 주님의

2.13. πολις를 여러 경우에 ‘고을’로 번역하였다.

복음서에 나오는 πολις는 오늘날의 대도시나 중소 도시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소읍(小邑) 또는 성읍(城邑)에 가까울 것이다. 그렇지만 『구판』에서 ‘성/성읍/도시’로 번역한 것을 ‘고을’로 고친 경우가 많이 있다. 그것이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수도’(首都)라는 의미로 ‘도성’(都城)으로 번역하였다.

마 10:5,11,14,15 등등, 도시, 성, 성읍 → 고을

계 11:2; 21:2,10,11,12,14,15,16,23,24,25,26,27 도시 → 도성

2.14. 고유명사 표기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다.

막 7:26 수로보니게 → 시로페니키아

행 21:2 베니게 → 페니키아

행 15:23 수리아 → 시리아

2.15. 다음은 원문의 발음에 가깝게 고친 곳이다.

- 마 1:7 아사 → 아삽
- 눅 3:26 서머인 → 세메인
- 눅 3:29 엘리에서 → 엘리에제르
- 눅 3:30 엘리아김 → 엘리아김
- 눅 3:33 아니 → 아르니
- 눅 3:35 스흥 → 스흥
- 눅 3:35 헤버 → 에벨

2.16. 좀더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었다.

- 마 1:1 족보 → 계보
 - 17 잡혀 갈 → 끌려 갈
- 마 2:22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서 →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 마 3:13 찾아오셨다 → 찾아가셨다
- 마 4:12 물러가셨다 → 돌아가셨다
- 마 5:35 큰 임금의 도성 → 크신 임금님의 도성
- 마 6:33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 마 8:28 너무나 사나웠으므로 → 너무나 사나워서
 - 33 퍼뜨렸다 → 알렸다
- 마 12:38,39 등등 표적 → 표징
- 마 13:10 예수께 여쭙었다 → 예수께 말했다
 - 30 거들 때가 될 때까지 → 추수 때까지
 - 30 거들 때에 → 추수 때에
 - 30 일꾼 → 추수꾼
 - 58 행하지 않으셨다 → 행하지 않으셨다
- 마 14:15 예수께 다가와서 아뢰었다 →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다
 - 15 훑어 보내서 → 헤쳐 보내어
- 마 15:2,3,6 관습 → 전통
 - 30 일어서지 못하는 → 걷지 못하는
- 마 17:1 높은 산으로 가셨다 →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 마 19:1 유대 지역 → 유대 지방
 - 17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 선한 분은 한 분이다
- 마 21:7 나귀와 새끼 나귀 →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 마 22:32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 말씀하셨다
- 마 24:3 저희에게 → 우리에게
- 마 28:12 군인들에게 → 병사들에게
- 막 1:22 그의 가르치심 → 그의 가르침
- 막 2:11,12 네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 네 자리를 걸어서
28 안식일에조차도 → 또한 안식일에도
- 막 3:16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 주신 →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 막 4:12 그들이 돌이켜 → 그들이 돌아와서
- 막 4:27 밤에 자고 낮에 깨고 하는 동안에 →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28 땅은 열매를 저절로 맺게 하는데 →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34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나 →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37 거의 가득 찼다 → 벌써 가득 찼다
- 막 5:14 달음질하여 → 달아나
28 생각했던 것이다 →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29 그런 다음에 → 그래서
- 막 6:9 두 벌 옷을 가지지 → 옷은 두 벌 가지지
31 외딴 곳으로 가서 → 외딴 곳으로 와서
- 막 7:28 아이들 → 자녀들
- 막 8:32 예수를 꼭 붙들고 →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 막 9:4 말을 나누었다 → 말을 주고받았다
8 바로 둘러보았으나 → 문득 둘러보았으나
43 지체 장애인으로 → 한 손을 잃은 채로
50 그 짠맛을 내겠느냐? →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 막 10:11 아내에게 간음하는 것이요 →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13 바라는데 → 바랐다. 그런데
42 민족들을 → 이방 사람들을
42 그들을 → 백성들을
- 막 11:1 올리브 산 근처인 벳바게 →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바게
13 무화과의 때 → 무화과의 철
- 막 13:36 주인이 갑자기 오더라도 → 주인이 갑자기 와서
- 막 14:3 나병으로 고생하던 환자 시몬 → 나병 환자였던 시몬
34 내 마음이 괴로워 → 내 마음이 근심에 싸여
- 눅 1:3 처음부터 → 시초부터
3 이야기를 차례대로 엮어 드리는 → 그것을 순서대로 써 드리는
10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 온 백성은 다 밖에서
13 네 아들을 낳을 것이니 →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니

- 22 본 줄을 알았다 → 본 줄로 알았다
28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신다
42 태 속에 있는 → 태중의
44 " "
- 눅 2:8 그 지역의 목자들이 →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9 그들에게 두루 비치었다 → 그들을 두루 비추니
20 듣고 본 모든 것이 다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것과 같았기 때문에 →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29 떠나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51 내려가 나사렛에 돌아와서 →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 눅 3:38 아담,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이른다 →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 눅 4:6-7 줄 것이니 → 준다. 그러므로
7 이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다 →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13 잠시 동안 예수에게서 떠나갔다 →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18 자유를, → 해방을 선포하고,
18 다시 보게 함을 → 눈뜸을
29 있었으므로 → 있으므로
32 그의 가르치심 → 그의 가르침
41 그를 그리스도로 알았기 →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 눅 5:5 말씀에 따라 → 말씀을 따라
14 깨끗하게 된 것에 관하여 →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16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 →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17 예수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고 계셨다 →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므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19 기와를 벗기고 →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24 침대를 거두어 들고 → 침상을 치워 들고
- 눅 6:45 선한 것을 쌓아 두었다가 → 갈무리해 놓은 선 더미에서
45 악한 것을 쌓아 두었다가 → 갈무리해 놓은 악 더미에서
- 눅 7:29 하나님을 의로우시다고 하였다 → 하나님의 옳으심을 드러냈다
- 눅 8:27 그 동네에 사는 → 그 마을 출신으로서
- 눅 9:31 죽으심에 → 떠나가심에
45 이 말씀에 대하여 → 그 말씀에 관하여
- 눅 11:8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 →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11 아버지가 되어 가지고 →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 19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 바알세불을 힘입어
- 20 하나님의 능력으로 →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 23 내 편에 서지 않는 → 나와 함께 하지 않는
- 25 청소되고 → 치워져 있고
- 46,47,52 화가 있을 것이다 → 화가 있다
- 48 무덤을 꾸미고 있기 때문이다. → 무덤을 세우기 때문이다.
- 눅 12:2 덮어둔 → 가려 놓은
 - 2 숨긴 것 → 숨겨 놓은 것
- 21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 눅 13:7 찾지 못하였다 → 열매를 본 적이 없다
 - 31 죽이려고 → 죽이고자
- 눅 14:5 너희는 → 너희 가운데서 누가
- 눅 15:2 수군거리며 → 투덜거리며
 - 19 품꾼으로 → 품꾼의 하나로
- 눅 16:25 온갖 복을 다 누렸지만 →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 눅 18:31 인자에 관하여 → 인자를 두고
- 눅 19:41 눈물을 흘리시며 42 이렇게 말씀하셨다. → 우시었다. 42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 42 평화의 길 →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
- 눅 20:1 복음을 전하고 → 기쁜 소식을 전하고
 - 28 어떤 남자 → 어떤 사람
 - 28 그 남자가 → 그 동생이
- 눅 21:14 명심해서,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말아라 →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 눅 22:7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이 되자 →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 눅 23:2 예수를 고소하기 시작했는데 →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 8 예수가 일으키는 일에서 어떤 표적을 보고 싶어 하였다 →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하였다
 - 14 당신들이 고소한 것과 같은 →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 39 죄수 가운데 한 죄수도 → 죄수 가운데 하나도
- 눅 24:4 모르고 있는데 →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 16 눈이 가리어서 → 눈이 가려져서
 - 51 그들에게 축복하시면서 →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 요 1:3 생겨났으니 → 창조되었으니

- 4 생겨난 것은 → 창조된 것은
- 15 그를 증언하여 →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 47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 요 2:23 예수께서 나타내 보이신 표적을 보고 →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 24 그들을 의지하지 →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 요 3:1 유대 의회원 →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
- 요 5:4 물이 움직일 때에 → 물이 움직인 뒤에
- 31 나 스스로를 두고 증언을 한다면 → 내 자신을 위해서 증언한다면
- 45 너희를 걸어서 아버지께 고소를 하리라고는 →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 하리라고는
- 45 너희를 걸어서 고소하는 이는 →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 요 6:47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 요 7:28 성전 안에서 → 성전에서
- 46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 49 무리 → 이 무지렁이들
- 요 8:6 고소할 구실을 → 고발할 구실을
- 28 말했다는 것을 → 말한다는 것을
- 29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 두지 않으신다. →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 두지 않으셨다.
- 39 아브라함의 자손 → 아브라함의 자녀
- 39 아브라함이 한 대로 하였을 →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 41,44 아버지 → 아비
- 요 9:8 거지였던 것을 → 거지인 것을
- 41 죄가 없었을 것이다 → 죄가 없을 것이다
- 요 11:17 무덤 안에 → 무덤 속에
- 48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 50 백성을 대신하여 → 백성을 위하여
- 요 12:16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 회상하였다
- 27 이 일을 위하여 → 이 일 때문에
- 40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여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 요 14:2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일러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 6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 요 15:19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19 사랑했을 것이다 → 사랑할 것이다
- 요 16:8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 9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며 →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 10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 너희가 나를 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임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 11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실 것이다 →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 요 18:26 귀를 잘렸던 → 귀를 잘린
- 요 19:11 나를 해할 → 나를 어찌할
- 요 19:23,24 군인들 → 병정들
- 30 신 포도주를 드시고 →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 35 이 사실은 목격자가 본대로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여러분도 믿게 하려고 증언하였다. →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 요 21:8 들어가 있었다 →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 25 부족하리라고 → 부족할 것이라고
- 행 1:2 성령의 힘으로 지시를 내리신 다음에 →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 3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여러 가지 일을 →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 6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 11 다시 오실 것이다 → 오실 것이다
- 16 유다에 대해서는 → 유다에 관하여
- 16 당연히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 25 사도의 직무를 맡기시겠는지 →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 행 2:3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혀들이 →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혀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 11 이야기하는 것을 → 말하는 것을
- 22 증언하신 → 증명해 보이신

- 33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45 나누어 가졌다 → 나누어 주었다
- 46 집마다 빵을 떼면서 →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 행 3:18,21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 23 빼내어 없앨 것이다 →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 행 4:23 놓이는 → 풀려나는
- 행 5:5,11 들은 → 듣는
- 38 이 계획과 활동이 → 이 계획이나 활동이
- 행 6:1 매일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 행 7:14 청하여 오게 → 모셔 오게
- 29 두 아들을 → 아들 둘을
- 41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며 →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 행 8:1 교회가 크게 박해받기 시작하여, →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 3 없애 버리려고 집집마다 →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 행 9:22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면서 →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 31 그러는 동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 들어선 교회는 안정이 되어 터전을 튼튼히 잡았고 →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 갔고
- 행 10:11; 11:5 네 귀통이에 끈이 달려서 → 네 귀통이가 끈에 매달려서
- 행 10:29 거절하지 → 반대하지
- 행 11:2 할례를 받은 신도들이 →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 21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니 믿게 된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 →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 행 13:6 온 섬을 두루 다니다가 →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 7 서기오 바울이 늘 곁에 있게 하는 →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 26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형제 여러분 →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 31 그에 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 예수의 증인입니다
- 33 다시 살리셔서 → 일으키셔서
- 43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
- 행 14:16 각자의 방법대로 → 자기네 방식대로
- 행 15:14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이방 사람들을 처음으로 돌보신 경위에 대해서는 시므온이

- 이야기하였습니다. →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 40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 행 16:3 할례를 주었다 → 할례를 행하였다
- 25 한밤중에 → 한밤쯤 되어서
- 행 17:30 그대로 지나치셨지만 → 눈감아 주셨지만
- 행 18:6 먼지를 털고서 → 먼지를 떨고서
- 26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 행 19:4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 세례를 주었습니다
- 행 20:12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가면서, 한없는 위로를 받았다 →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 행 21:22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 35 군중의 폭행 때문에 →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 행 22:10 네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말해 줄 사람이 거기에 있다 → 거기에는 네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 줄 것이다
- 11 같이 가는 사람들 → 함께 가던 사람들
- 16 당신의 죄를 씻어주시심을 받으시오 →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시오
- 18 나를 두고 한 네 증언을 → 나에 관한 네 증언을
- 행 23:3 "그대,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그대를 치실 것이오. 그대가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오.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 12 무리를 지어서 → 모의하여
- 16 조카 → 누이의 아들
- 행 24:10 몸짓을 하니 → 머리를 끄덕이니
- 행 25:17 같이 → 함께
- 24 함께 계신 → 자리를 같이 하신
- 행 26:18 어둠에서 빛으로, → 빛으로 돌아서고,
- 29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말고는 →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 행 27:2 함께 있었다. → 함께 하였다.
- 13 남풍이 순하게 불어왔으므로 →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 21 그 때 바울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 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23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39 알 수 없었으나, → 알 수 없지만,

행 28:21,22 그대 → 당신

23 그날이 되자 많은 사람을 데리고 → 그 날에 더 많은 사람이

27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
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
게 하여,/

롬 1:1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
음을 전하라고 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4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권능으로 하나
님의 아들로 확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 성
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
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
십니다.

5 우리는,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이방 사람으로 하여금 믿어서 순종하
게 하려고, 그를 통하여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6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 여
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
람이

7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
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
성으로 부르셨습니다.

8 나는 먼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
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9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 나를 증언하는 분이십니다. →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
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 속을 알고 계십니다.

11 어떤 신령한 은사를 → 신령한 은사를 줌

- 17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으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 21 어둠으로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 어두워졌습니다
- 23 네 발 달린 짐승 → 네 발 짐승
- 롬 2:1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 1 남을 심판하는 것은 →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 3 사람이 있는데, → 사람이여,
(3,5,17,21절 사람 → 그대)
- 롬 3:4 주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 4 주께서 판단을 받으실 때에 → 재판을 받으실 때에
- 23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 24 의롭게 하여 주심을 → 의롭다는 선고를
- 26 자기의 의를 → 자기의 의로우심을
- 26 의롭게 하여 주신다는 → 의롭다고 하신다는
- 28 의롭게 하여 주심을 →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 롬 4:3 그것을 의로움으로 인정하여 주셨다 →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 5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 → 의롭다고 하시는 분
- 5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 8 인정해 주시는 → 인정해 주실
- 9 의로움으로 인정하여 주셨다 → 의로 여기셨다
- 11 이미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 11 의로움을 인정받게 →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 13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로 된 것입니다. →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 22 이것을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하셨습니다.” →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 23 그가 의로움을 인정받았다 →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 24 의롭게 여겨 주실 → 의롭다고 여겨 주실
- 롬 5:1 의롭게 하여 주심을 → 의롭다 하심을
- 1 평화를 누리십니다 →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 4 품격 → 단련된 인격
- 18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아서 →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 21 은혜가 의로 사람을 지배하면서 →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

하여

21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을

롬 6:4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 새 생명 안에서

5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10 죄에 대하여 단 한번만 → 죄에 대해서 단번에

롬 7: 2,3 여인 → 여자

4 속하였습니다 → 속하게 되었습니다

6 우리를 얽어 매던 것에서 → 우리를 옳아맺던 것에 대하여

롬 8:2 여러분 각자를 → 당신을

33 고소하겠습니까? → 고발하겠습니까?

34 다시 살아나셔서 → 살아나셔서

롬 9:3 내 동족 내 겨레 → 내 동족인 내 겨레

5 만물 위에 계시면서, → 만물 위에 계시며

32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의에 이르려고 →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롬 10:1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내 동족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
니다. →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
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20 찾지 않던 → 찾지 않는

20 구하지 않던 → 구하지 않는

롬 11:17 돌올리브 나무를 접붙였다면, 그 접붙인 가지들은 참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됩니다. 18. 여러분 각자는 돌올
리브 나무 가지들입니다. 그런 가지는 → 돌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
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
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18 그대는

18 그 가지가 → 그대가

18 그 가지를 → 그대를

19 여러분 각자는 “...” 하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그러므로
“...”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24 여러분 각자가 → 그대가

롬 12:3 한 사람 한 사람에게 → 각 사람에게

8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10 육친의 사랑으로 → 형제의 사랑으로

롬 13:4 통치자는 여러분 각자에게 →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

람에게

4 여러분 각자가 → 그대가

8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롬 14:10 우리는 → 그대는

롬 15:31 기쁜 선물이 되도록 →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33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롬 16:25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하여 주심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십니다. →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고전 1:6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 →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9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10 일치되는 말을 → 같은 말을

12 바울 파다 → 바울 편이다

14 여러분 가운데 → 여러분 가운데에서

14 가이오 말고는 → 가이오 밖에는

16 주었는지는 모릅니다 →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23 그리스도를 전하되, 십자가에 달린 분으로 전합니다. →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23 어리석음이지만 → 어리석은 일입니다

25 강하기 때문입니다 → 강합니다

26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27 어리석은 것 → 어리석은 것들

27 강한 자들 → 강한 것들

27 약한 것 → 약한 것들

28 비천한 것 → 비천한 것들

28 멸시받는 것 → 멸시받는 것들

고전 2:3 약하였고, 두려워 하였고, →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7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고전 3:9 하나님의 집입니다 →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10 터를 닦아 놓았습니다 → 기초를 놓았습니다

11,12 터 → 기초

15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마치 불 속을 거쳐서 살아나오듯

→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18 스스로를 생각하거든, → 스스로 생각하거든,

고전 4:6 뽐내지 못하게 → 뽐내지 않도록

7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 그대를

7 여러분 각자가 → 그대가

8 왕이라도 된 듯이 다스리려 하였습니다 →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
였습니다

8 왕처럼 다스렸으면 → 왕처럼 되었으면

8 여러분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면 →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되면

9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 내놓으셨습니다

10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으나,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15 나는 → 내가

17 주 안에서 사랑하는 → 주님 안에서 얻은 사랑하는

19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이 한 말의 시비
를 가려 볼 생각은 없습니다. →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전 5:2 제거해야 → 제거했어야

4 함께 모일 때에 → 모여 있을 때에

4 여러분과 한 자리에 → 여러분과 함께

7 새 반죽이 될 수 있도록 →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8 성실과 진실을 넣어서 만든, 누룩 없이 된 빵으로 →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11 형제나 자매라고 일컫는 → 신도라 하는 어떤

고전 6:2 가장 작은 → 아주 작은

4 소송이 → 송사가

9 남창 노릇을 하는 자나 동성연애를 하는 남자나 → 여성 노릇을 하
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19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
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19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것을 여러분 안에 모시
고 있습니다. →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
니다.

고전 7:1 문제에 관하여 → 문제를 두고

4 아내는 → 아내가

11 아내와 이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12 신도에게 → 교우에게

12 그 여자와 이혼하지 → 그 여자를 버리지

13 그 남자와 이혼하지 말아야 →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25 처녀들에 관해서 내게 명령하신 것은 없습니다 → 처녀들에 대해서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27 아내를 새로 맞으려고 → 아내를 얻으려고

28 결혼하더라도,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 →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28 결혼하더라도, 그것이 죄를 →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고전 8:1 고기에 관하여 → 고기에 대하여

5 남들은 신도 많고 주도 많다고 하고,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고 하지만, →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7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 때에는 자기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7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10 어떤 약한 사람이, 지식을 가진 여러분 가운데 누가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는 것을 보면, → 지식을 가진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11 그 약한 신도는 여러분의 →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13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면 →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13 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 그가

고전 9:11 지나친 일이 되겠습니까? →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25 찌어질 월계관 → 찌어 없어질 월계관

25 찌어지지 않을 월계관 → 찌지 않을 월계관

고전 10:4 그들의 동반자인 신령한 바위로부터 →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5 그들 모두를 두고 기뻐하지 → 그들의 대다수를 ... 좋아하지

13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말고는, 여러분에게 덮친 시련이 없습니다. →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19 우상 앞에 놓인 제물 → 우상에게 바친 제물

24 누구든지 → 아무도

25 양심을 생각하여 묻지 않고 먹어도 됩니다. →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27 양심을 생각하여 →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29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으니까? → 남의 양심의 비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고전 11:3 아내의 → 여자의

3 남편이요 → 남자요

17 문제에서는 → 일에 대해서는

18 교회에서 → 교회에

23 빵을 드시어서 → 빵을 들어서

29 주님의 몸을 → 몸을

고전 12:19 한 지체 → 하나의 지체

고전 13:1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으로 말을 할지라도 →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3 자랑스러운 일을 하려고 → 내가 자랑삼아

고전 14:16,17 여러분 각자가 → 그대가

18 방언으로 말하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3 방언으로 말하면, 초신자나 불신자가 들어와서 듣고 →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고전 15:2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말대로, 여러분이 복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 복음으로 →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10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1 또 → 또한

37 그리고 뿌리는 것은 →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50 유업 → 유산

57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후 1:3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지요, 아버지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지요,

4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4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셔서 온갖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15 두 배의 은혜를 → 두 번 다시 은혜를

23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지금 이 말을 합니다. →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고후 2:2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여러분 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 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14 우리로 → 우리를 통하여

고후 3:7 빛이 났습니다 → 광채가 났습니다

9 영광이 있었으니 → 영광이 있었으면

16 주께로 돌이키면 → 주님께로 돌아서면

고후 4:1 이 직분을 맡았으므로 →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7 질그릇 속에 → 질그릇에

8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곤경에 빠지지 않으며 →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8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13 나는 믿었으므로 말했다 →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고후 5:1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4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 덧입기를 바랍니다

11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12 대답할 말을 하게 → 대답할 말을 가지게

21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후 6:1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4 우리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 4 겪었습니다. → 겪습니다.
- 7 이 일을 해 왔습니다 → 이 일을 합니다
- 9 죽은 사람 → 죽는 사람
- 11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었습니다 →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 12 용색 → 용졸
- 13 보답하는 뜻으로 → 보답하는 셈으로
- 고후 7:1 이러한 약속을 받았으니 →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 8:5 주님께 드리고 → 주님께 바치고
- 고후 9:9 그의 의로우심이 영원하다 →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 고후 10:2 내가 떠나 있을 때에 → 내가 … 여러분을 대할 때에
 - 11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알아야 합니다
- 고후 11:2 오직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그리스도와 정혼시켰습니다.
→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 5 저 가장 위대하다는 사도들 → 저 거물급 사도들
 - 19 어지간히 → 어지간히도
 - 26 거짓 형제자매 → 거짓 형제
 - 32 총독 → 총리
- 고후 12:11 저 가장 위대하다는 사도들 → 저 우두머리 사도들
 - 12 표적과 기사와 기적으로써 사도가 된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으로 삼아 사도가 된 표징을 행하였습니다
- 고후 13:2 죄 지은 사람들이나 → 범죄한 사람들과
 - 3 여러분을 대하실 때에 약하지 않습니다 →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 5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 갈 1:14 나와 비슷한 나의 →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 22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나를 개인적으로 알 기회가 없었습니다 →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 갈 2:12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자 → 오니
- 갈 2:16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 16 율법을 지키는 행위 → 율법을 행하는 행위
 - 16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 19 율법 앞에서는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 율법과의 관

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19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20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갈 3:7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 믿음에서 난 사람들

18 율법에서 나온 것이면 → 율법에서 난 것이면

18 약속에서 나온 것이 → 약속에서 난 것이

21 주어진 율법이 → 중개자가 준 율법이

22 성경을 보면 → 성경은

28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갈 4: 4 여인에게서 → 여자에게서

6 자녀가 되었으므로 → 자녀이므로

6 보내 주시고 → 보내 주셔서

20 이야기를 나눌 수 → 말할 수

25 하갈은 → ‘하갈’이라 하는 것은

갈 5:1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1 종의 멍에를 → 종살이의 멍에를

6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21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거리는 연회와, 또 이와 비슷한 →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놀음과, 그와 같은

22 평화와 → 화평과

갈 6:1 성령의 지도를 받아 사는 →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2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엡 1:1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리는 →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13 성령의 인치심을 → 성령의 날인을

2:4 그 큰 사랑으로 →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5 범죄로 죽었던 → 범죄로 죽은

- 11 육신에다가 행하는 → 육체에 행한
- 11 일컬어졌습니다 →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 12 이스라엘 시민권에서 →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 20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 21 성전으로 자랍니다 →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 22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 되어갑니다. →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엡 3:6 복음을 듣고서 → 복음을 통하여

- 6 함께 상속자가 → 공동 상속자가
- 6 함께 약속을 받은 지체가 →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 7 복음의 일꾼 → 복음을 섬기는 일꾼
- 18 넓이 → 너비

4:1 주님의 일로 → 주님 안에서

- 2 온유함을 지니십시오 → 온유함으로 각듯이 대하십시오
- 4 한 희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 11 목회자 → 목사

16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므로, 온몸은 여러 부분이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각 부분이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각 마디로 영양을 공급 받고,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게 합니다 →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엡 5:9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입니다 →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13 빛으로 말미암아 폭로되는 것은, 드러나게 됩니다 →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엡 6:17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빌 1:1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 모두에게 →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 19 알기 때문입니다 → 압니다
- 20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 26 그것은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감으로써, 여러분이 나를 대면하는 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 다 →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 27 복음을 믿는 일에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함께 싸우고 →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 빌 2:1 어떠한 격려나, 사랑의 어떠한 위로나, 성령의 어떠한 교제나, 어떠한 동정심과 →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 5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 19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 여러분의 형편을 앎으로써
- 빌 3:2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 3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 4 육체에도 신뢰를 → 육신에도 신뢰를
- 4 육체에 신뢰를 → 육신에 신뢰를
- 6 흠 잡힐 데가 없습니다 →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 9 율법에서 오는 → 율법에서 생기는
- 13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 14 목표를 향하여 → 목표점을 바라보고
- 빌 4:1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십시오 →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 9 여러분과 계실 것입니다 →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 14 함께 참여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 동참한 것은 잘 한 일입니다
- 22 가이사의 집 사람들 →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
- 골 1:2 편지합니다 → 이 편지를 씁니다
- 18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십니다 → 교회라는 몸의 머리가십니다
- 20 기쁘게 → 기꺼이
- 22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 27 여러분 가운데 계신 → 여러분 안에 계신
- 골 2:15 내세우심으로써 → 내세우셔서
- 16 어떤 사람도 → 아무도
- 21 만지지도 말아라 → 건드리지도 말아라
- 골 3:1 살려 주심을 받았으니 → 살려 주심을 받았으면
- 4 영광 가운데 → 영광에 싸여
- 15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 골 4:3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하시도록 →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 살전 5:6 깨어 있으면서 → 깨어 있으며

- 살후 1:8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 불꽃에 싸여 나타나셔서
딤펴전 2:2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딤펴후 1:12 내가 믿는 분 → 내가 믿어 온 분
딤펴후 4:17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몬 5 그대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며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있다는 이야
기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6 그대가 우리와 더불어 누리는 믿음의 사귄이 효력을 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그대가 충분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 그대의 믿음의 사귄이 더
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
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히 1:2 아들을 시켜서 → 아들을 통하여
2 그로 말미암아 → 그를 통하여
히 6:13 당신보다 → 자기보다
13 당신 스스로를 → 자기를
히 7:11 서열 → 계통
히 8:1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데, →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히 9:2 앞칸에 → 첫째 칸에
히 10:20 휘장을 꿰뚫어서 → 휘장을 뚫고
히 11:2 옛 조상들 → 선조들
4 예물을 두고 증언하여 주신 →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7 믿음을 따른 의 → 믿음을 따라 얻는 의
13 멀리 → 멀리서
40 세워 두셨기 때문에 → 세워두셔서
40 완성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
니다
히 12:5,6,7... 훈련 → 징계
약 3:14,16 파당심 → 경쟁심
벰전 1:2 거룩하게 해 주셨으므로 → 거룩하게 해 주셔서
벰전 2:5 살아 있는 돌과 같이 되었으니,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
시오. →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
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벰후 2:20 구세주 → 구주
요일 3:11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인데 →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

은 소식은 이것이니

23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니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요삼 12 그 진실한 삶이 스스로 그렇게 평하여 주었습니다 →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유 3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나눈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써 준비를 해 왔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간곡한 권고의 편지를 쓸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단 한 번 결정적으로 전해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이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유 23 또 본능적인 욕정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욕정으로 더럽혀진 그들의 속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들에게는 조심스럽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계 2:1,8,12... 천사 → 심부름꾼

계 5:1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안팎에 글이 적혀 있는 그 두루마리는 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일곱 인을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계 22:7 내가 곧 가겠다 → 내가 곧 오겠다 (*이것은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주신 약속으로 들리기 때문에 ‘오겠다’로 해야 할 것이다.)

2.17. ‘쫓아내다’와 ‘내쫓다’

‘귀신을 쫓아내다’와 ‘귀신을 내쫓다’는 두 표현은 어느 쪽이 옳은가? 둘 다 옳다고 보아야 하는가? 의미가 다른가? 국어 사전의 개념 정의로도, 국어 학자들의 견해로도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것 같다. 『개역 성경』은 ‘귀신을 쫓아내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구판』에서는 이 표현을 모두 ‘귀신을 내쫓다’로 바꾸었다. 『개정판』에서는 이것을 『개역성경』의 표현대로 다시 바꾸기로 하였다. 다만 이 작업이 철저하지 못하여 누가복음에는 『구판』 그대로 ‘귀신을 내쫓다’로 되어 있다.

2.18. 주격 조사를 문맥에 적절하게 고쳤다.

서신의 발신인을 표시하는 주격 조사는 모두 ‘...은/는’을 ‘...이/가’로 바꾸었다. 예를 들면, 이 발신인 표시는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다”라는 사실을 수신인에게 알리는 것이지 “바울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주격 조사는 ‘바울이’이다. 해외 주재 기자가 국내로 뉴스를 전달할 때에 “아무 아무개간 말씀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마 8:28 그들이 너무나 사나웠으므로 →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29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

마 10:24 제자는 → 제자가

3. 원문과 관계된 문제

3.1. 바울의 대화적 논쟁 방식에 등장하는 가상적 ‘그대’(=2인칭 단수)를 한 일반 사람(=3인칭 단수)으로 처리한 것을 원문을 살려 번역하였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석상으로 일반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나 실제의 화자(話者)를 지칭하는 것이나 하는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나’(=I) 또는 ‘우리’(=we)라는 대명사를 번역하는 것과 일관성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롬 2:3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하십니까?

롬 2:4 더구나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사람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기까지 한다니, 될 말입니까? →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롬 2:1,5,17-23,25,27는 모두 이 유형에 속한다.)

문장의 주어가 2인칭 복수에서 갑자기 2인칭 단수로 바뀔 경우가 있다. 우리말에는 ‘여러분’에 대응되는 ‘단수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칭하기 위하여 ‘여러분 각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했다

(갈 4:7; 롬 13:4 등등).

3.2. 그리스어 문법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도 현재형 분사가 사용되었는지 단순과거형 분사가 사용되었는지를 구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막 14:26). 노래를 부른 것은 올리브 산으로 가기 전에 행한 일이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서’는 단순과거형 분사를 사용하여 표현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라고 하면 노래를 부르는 행위와 올리브 산으로 가는 행위가 동시에 수행되었음을 뜻한다. 이와 같은 ‘찬송을 부르면서’라는 의미를 그리스어로 표현하려면 현재형 분사를 사용해야 한다.

행 13:16 바울은 일어나서 손짓을 해 가면서 말하였다. →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특히 [단순과거형 + ‘말하다’ 동사의 정형 또는 분사]로 구성된 문장을 번역할 때에 위의 원칙을 어떻게 고수해야 할지 주의해야 한다.

마 4:8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9 그에게 말하였다. →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9 말하였다.

마 12:49 제자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 하고 말씀하셨다. →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

마 27:3 그 은돈 서른 닢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말하기를 → 그 은돈 서른 닢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막 3:34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 →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막 10:49 그들은 눈먼 사람을 부르며 말하기를 →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부르는 행위와 말하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요 20:22 그들에게로 숨을 내뿜으시고 →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숨을 내뿜으시거나 불어넣으시는 행위와 말씀하시는 행위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행 12:7 옆구리를 찢어 깨우며 말하기를 →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말에서 “문 닫고 들어오너라”라는 표현이 논리에 맞지 않는 것처럼 단순과거 분사를 원칙대로 번역하면 사리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막 11:1-2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둘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막 6:7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둘씩 보내기 시작하셨는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보내기 시작했다’(=‘시작하다’의 단순과거 = ‘보내다’의 부정사)는 ‘보내다’의 단순과거와 같은 셈이다. ‘주다’는 반과거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보내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시면서 보내신 것이다. 원문의 동사 배열 순서를 따라 ‘보내시며 주시었다’라고 번역해도 무방하다.

이와 달리 현재분사를 ‘…하고’로 번역하는 것은 잘못이다.

막 1:5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으며 자기들의 죄를 고백했다’라고 번역해도 된다. ‘세례를 받다’는 반과거, ‘고백하다’는 현재분사이다.)

단순과거의 동작이 일어나는 양태는 일회적이며 단절적이다. 이 사실을 명백히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석적으로 중대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마 26:26-27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27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것을 마셔라.” →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27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들다¹=단순과거 분사; 축복하다=단순과거분사; 떼다=단순과거; 주다¹=단순과거 분사; 말씀하다¹=단순과거; 들다²=단순과거 분사; 감사를 드리다=단순과거 분사; 주다²=단순과거; 말씀하다²=현재분사. 주의할 점은 단순과거는 동작이 지속적 양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빵 말씀에서 ‘주시고’와 ‘말씀하셨다’는 두 행위 중에 그 어느 하나도 다른 하나가 일어날 때에

지속되는 것일 수가 없다. 두 행위는 순차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므로 이 둘은 “주시고 말씀하셨다”로 번역해야 한다. ‘축복하다’와 ‘떼다’ 사이의 관계도 이와 같다. 축복하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떼는 행위가 일어났다. 잔 말씀에서 ‘주다’는 단순과거이고 ‘말씀하다’는 현재분사이다. 이 경우의 현재분사는 문장론적으로 ‘and + 동사’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주시고 말씀하셨다”로 번역해야 한다. 원래의 성만찬 의식에서 이른바 빵 말씀과 잔 말씀이 어느 단계에서 발언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작업은 성만찬의 본래적 형태와 의미를 규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단순한 물질인 빵과 포도주가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 변했는가 또는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가 하는 물음은 교리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다. 다만 본문에 의거하여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빵 말씀과 잔 말씀은 분배되기 전에 빵과 포도주를 각각 주님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는 주술적 효력을 일으키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가장 오해를 일으키는 것은 ‘빵을 들다’와 ‘축복하다’, ‘잔을 들다’와 ‘감사 기도를 드리다’의 관계이다. 축복을 하실 때에 예수는 그의 손에 빵을 들고 있으며 감사 기도를 드리실 때에 그의 손에 잔을 들고 계신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리스어 표현으로는 ‘들다’(더 정확하게 말하면: ‘집다/취하다’(take)라는 뜻이지 ‘쥐고 있다’(=hold)라는 뜻이 아니다)는 단순과거 분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축복을 하시거나 감사 기도를 드리기 전에 빵과 잔을 각각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하는 것이지 축복하시거나 감사 기도를 드리실 때에 빵과 잔을 각각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빵을 들어서”, “잔을 들어서”로 번역하는 것이 “빵을 들고”, “잔을 들고”로 번역하는 것보다 낫다.)

요 13:4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이 경우의 ‘가져다가’는 ‘빵을 들어서’와 ‘잔을 들어서’와 똑같은 동사의 똑같은 형태인 λαβων이다. 따라서 『표준 새번역』과 『개역』은 ‘가져다가’로, 『200』은 ‘들어’로 번역했다.)

눅 6:4 다윗이 ... 제단 빵을 집어서 먹고 (이 경우의 ‘집어서’도 위와 똑같은 λαβων이다. 이것은 “빵을 들고 먹었다”, 즉 먹을 때에 빵을 손에 쥐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먹기 전에 다윗이 취한 행위를 서술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역』과 『새번역』은 “집어 먹고”, 『표준』은 “집어서 먹고”, 『200』은 “받아 먹고”로 번역했다.)

눅 9:16

『개역』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

하시고

『새번역』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200』 예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공동』 예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뒤에

『구관』 예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개정』 예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이것도 역시 λαβων이다. 그러므로 『개역』이 옛말이긴 하지만 가장 원문에 가깝게 번역했다. ‘들고’로 번역하면 “지팡이를 짚고 걷는다”,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간다”, “꽃을 들고 찾아갔다”라는 문장의 ‘짚고’, ‘잡고’, ‘들고’처럼 동작의 지속 상태를 뜻한다는 오해가 생기게 된다.)

눅 22:17

『개역』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새번역』 잔을 들어 감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준』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200』 잔을 받으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말씀하셨다.

『공동』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

(이것은 δεχομαι(=receive)의 단순과거 분사 δεξαμενος이다. 『개역』, 『표준』, 『200』은 receive라는 의미를 잘 살려냈다. 『새번역』과 『공동』도 ‘들고’라고 번역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 성공적이다.)

3.3. 원문의 ‘때매김’(時制, tense)과 관련된 문제

어느 한인 출신 재미 교포가 미국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 오늘 죽었어!”라는 내용의 말을 영어로 그대로 직역해서 말했다가 살인 미수죄로 기소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우리말에는 미래에 확실히 일어날 일을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스어에도 이와 유사한 어법이 있다.

마 7:27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진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엄청날 것이다. →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

났다.

(‘내리다’, ‘나다’, ‘불다’, ‘들이치다’, ‘무너지다’는 단순과거형이고 ‘엄청나다’에 사용된 be동사는 반과거형이다. 이것은 모두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확실하게 일어날 일을 말한다. 이것을 과거형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말 어법에 더 어울린다. 우리말 어법에서는 ‘무너졌다’가 과거형이면 그 앞의 대등문에 사용된 현재형은 과거를 뜻한다.)

마 24:22 그 환난의 날들을 줄여 주지 않으시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 주실 것이다. → 그 환난의 날들을 줄여 주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 주실 것이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모두 직설법이고 가정법은 하나도 없다. ‘줄여주다’¹과 ‘구원받다’는 둘 다 단순과거 수동태이며 ‘줄여주다’²는 미래 수동태이다. 가정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날들을 줄여 놓으신 것은 과거의 사실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미래에 있을 확실한 사실이다. 다만 조건절의 시상에 맞추어서 이것을 단순과거로 표현했다. ‘줄여주다’²는 정상적인 어법대로 미래형으로 표현되었다. ‘줄여 주실 것이다’라고 번역할 도리밖에 없지만 가정법 귀결문이 아니다. 그것은 확실한 미래의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이다.)

막 9:1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내용이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과정(process)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 있는 현상(phenomenon)을 보는 것이다. 그리스어로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달리 표현하는가? 첫째 것은 목적보어에 현재분사를, 둘째 것은 목적보어에 완료분사를 사용한다. 막 9:1에는 완료분사가 사용되었다. 병행절인 마 16:28에는 현재분사가 사용되었다.)

막 16:2 그래서 이레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다. → 그래서 이레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여자들은 새벽에 무덤을 찾아 갔다. 이 시점은 해가 돋기 직전인가, 해가

막 돈을 때인가, 해가 막 돈을 직후인가? 우리의 임무는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어 문장을 올바르게 번역하는 것이다. 마가는 2격 독립분사구문으로 이 시점을 기술했다. 분사의 시상은 단순과거이다. 그러므로 “해가 돌았을 때에” 또는 “해가 돈을 후에”로 번역해야 한다. “해가 돈을 때에”라는 의미를 표현하려면 현재분사를 사용해야 한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병행절에는 해와 관련된 분사구문이 사용되지 않고 ‘동틀 무렵에’, ‘이른 새벽에’라는 때대김 표시만 사용되었다. 우리의 임무는 마가복음의 본문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지, 마태와 누가의 내용과 조화시켜서 이 시점을 결정하려는 해설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막 6:18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리스어 원문에는 ‘여러 차례’라는 부사어가 사용되지 아니 했다. 그렇지만 이 부사어를 그냥 ‘말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번역하면 요한이 단 한 번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 단 한 번만 그러한 말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려면 단순과거 동사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본문에 사용된 동사는 반과거이다. 반과거는 반복적, 습관적, 진행적 행위를 나타내는 시상이다. 그러므로 ‘여러 차례 말하였다’, ‘거듭 말하였다’, ‘말해 왔다’ 등으로 번역해야 원문의 의미가 살아난다.)

3.4. 번역에 누락된 부분

『개정판』은 『구판』의 번역에서 누락된 부분을 찾아서 바로 잡았다.

마 12:4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이라는 수식구가 누락됨.

(이것은 원래 ‘제단 빵’을 수식하는 형용사절로 번역된 것인데 이 형용사절을 독립 문장으로 고치는 과정에서 착오로 누락되었을 것이다.)

마 27:43b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갈 5:6 그리스도 안에서는 →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살전 4:17b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벧후 1:19a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이 12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여

3.5. 편집 작업상의 오류

『구판』의 마 12:43-45는 『신약성서 새번역』의 본문 그대로를 옮겨 놓은 것이다. 이것은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이다. 『구판』 번역 작업을 할 당시에 번역자들은 원고지에 수작업을 했고 이것을 전문 직원이 컴퓨터에 입력했다. 원고지에는 이 부분이 대체로 현재의 『개정판』의 본문처럼 되어 있었다.

히 5:7b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고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그의 경외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심을 얻었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롬 9:2

<구판> “내게는 내 동족을 위한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개정>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원문에는 ‘내 동족을 위한’이라는 형용사구가 없다.)

눅 19:14

<구판>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하므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왕위를 줄 이에게 말하게 하였다.

<개정>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하므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왕위를 줄

마 11:19 / 눅 7:34

『개역』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다

『200』 보아라,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구나.

(이 구절은 예수에 대한 적대자들의 비방을 그대로 인용한 말이다. 이것은 욕설이다. 욕설의 신랄함을 드러내면 예수의 권위가 손상되고 예수의 권위를 보호하려면 욕설의 신랄함이 무디어진다. 실제로는 이 욕설 속에 예수의 진면목이 더 환히 드러난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우리말 번역성경 가운데서 『200』이 이 부분의 번역을 탁월하게 잘 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구판』은 『200』을 본 따서 “보아라,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구나”라고 번역했었다. 그런데 원고 검토의 어느 단계에서, 마태

복음 것은 『개역』대로 바뀌었고, 누가복음 것은 원래의 번역대로 두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개역』과 『200』 사이의 중간 수준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었다.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3.6. 우리말 어법에 치중하려다가 생긴 의미상의 오류

고전 1:27에 ‘어리석은 것들’, ‘강한 것들’, ‘약한 것들’, ‘비천한 것들’, ‘떨시 받는 것들’, ‘잘났다고 하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 것들’이라는 복수 명사가 나열되어 있다. 『구판』에서는 교열자가 우리말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복수 명사를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이 명사들을 단수형으로 바꾸었다. 그 결과로 원래의 의미가 달라져 버렸다. ‘어리석은 것’은 ‘어리석음’을 뜻하는 추상명사인데 ‘어리석은 것들’은 ‘어리석은 일들 또는 사람들’을 뜻한다.

행 1:17-21은 율 2:28-32(칠십인역)의 인용이다. 여기에는 아들들-딸들, 젊은 이들-늙은 이들, 남종들-여종들이 대칭을 이룬다. 그런데 인격을 무시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여기에 적용하여 ‘늙은이’를 ‘나이든 사람들’로 바꾸어 놓으니 ‘젊은이-늙은이’라는 운율상의 대칭 구조도 파괴되고 ‘쓸모 없는 늙은이들조차도’라는 본래의 의미가 상실되어 버렸다. 또 ‘너희의’ 아들들, ‘너희의’ 딸들, ‘너희의’ 젊은이, ‘너희의’ 늙은이, ‘내’(=나의) 남종들, ‘내’ 여종들이라고 명사 앞에 일일이 소유격 대명사가 붙어 있다. 이러한 소유격 대명사가 우리말 어법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여 제거해버리면 인용문에 담긴 원래의 의도가 사라져 버린다. 이 인용문의 의미는 칠십인역의 본문과 비교하여 차이점이 나는 곳에서 더 확연히 드러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인용문은 원문에 있는 이러한 표현들을 빠뜨리지 않고 번역해야 한다. 『개정』은 그렇게 되어 있다.

마 27:37 그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은 죄패를 붙였다. →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패를 붙였다. (간판이나 명패는 명사구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말 어법에 가깝다고 한다면 『구판』의 번역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만 원문에는 문장으로 기술되어 있다. 우리말 어법에는 어색할지라도 원문의 구조를 살리는 것이 옳을 것이다.)

3.7. 오역으로 판정할 수 있는 것

- 마 2:8 그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 그 아기를 살살이 찾아보시오
- 마 5:13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 마 10:4; 막 3:18 가나안 사람 시몬 → 열혈당원 시몬
- 마 13:41 죄짓게 하는 자들 →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
- 막 4:12 돌이켜 → 돌아와서
- 7 밤에 자고 낮에 깨고 하는 동안에 →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 눅 24:30 축사하시고 → 축복하시고
- 요 21:4 동틀 무렵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바닷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 때에, 예수께서는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 행 2:46 집마다 → 집집이 돌아가면서
- 행 5:38 이 계획과 활동 → 계획이나 활동
- 행 8:10 이 사람이야말로 '큰 능력자'로 알려진 하나님의 능력이다 →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 롬 16:25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 →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
- 고후 3:16 돌이키면 → 돌아서면
- 고후 10:2 내가 떠나 있을 때에 → 내가 여러분을 대할 때에
- 갈 5:1 종의 멍에 → 종살이의 멍에
- 빌 4:1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십시오 →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 몬 19 그대가 내게 빛을 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빛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 약 3:14,16 당파심 → 경쟁심
- 벧전 1:3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 벧후 2:20 구세주 → 구주
- 계 1:15 화덕 → 풀무불
- 계 6:10 우리가 흘린 피의 원수를 갚아 →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
- 계 20:4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과 →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3.8. NTG 27판의 본문을 철저하게 따랐으며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와 [] 부호를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요한복음 1장 3절 끝 부분과 4절 처음 부분을 한 문장에 포함시켜 번역하는 것은 그 두 부분을 각각 다른 문장에 귀속시켜 번역하는 것보다 뜻이 잘

통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본문에 표시된 문장 부호를 따라서 번역해야 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자랑하다’(καυχουμαι)라는 동사를 ‘불사르다’(καυθησομαι)로 바꾸어 번역하면 뜻이 분명하게 통하지만 본문이 ‘자랑하다’를 지시하기 때문에 어색하지만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다.

마 27:16 그 때에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 그 때에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마 27:17 바라바 예수요? → 바라바 [예수]요?

막 3:16 예수께서 열둘을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신] 시몬과 → [예수께서 열둘을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눅 10:1 주께서는 달리 일흔두 사람을 세우셔서, ...둘씩 둘씩 앞서 보내셨다. → 주님께서는 다른 일흔[두] 사람을 세우셔서, ...둘씩 [둘씩] 앞서 보내시며

눅 24:51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52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 51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52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3.9. 인용문 안의 보고문과 인용문이 구별되도록 번역했다.

행 7:48-49 ‘나 주가 말한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 주겠으며, 내가 쉴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 주겠으며, 내가 쉴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4. 각주의 내용

마 8:11 각주 ㉓): 기대어 누울 것이다 → 비스듬히 눕다

마 14: 27 각주 ㉠을 삭제하고 본문에 [예수께서]라고 []부호를 붙임.

3) 편집이 달라지면서 개정판에서 각주 기호가 달라졌다. 여기서는 『표준새번역초판』의 기호를 따라서 설명한다. 이하 같음.

- 마 18:11 각주 ㉔에서: 잃어버린 자 → 잃은 사람을
- 마 23:14 각주 ㉔: 삼켜 버리고 → 삼키고
그러므로 무서운 심판을 → 그러므로 너희는 무서운 심판을
- 마 27:49 각주 ㉑: 군인 → 병사
- 막 2:15 각주 ㉔: ‘기대어 누웠는데’ → ‘비스듬히 누웠는데’
15 각주 ㉔: ‘기대어 누워 있었다’ →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 막 3:14 각주 ㉑을 삭제함.
- 막 14:27,29 각주의 내용과 본문의 내용을 맞바꿈.
- 막 16:8 각주 ㉔에서: 끝 → 끝맺음(네 번 사용됨)
㉔에서: 끝 → 끝맺음(두 번 사용됨)
- 요 14:2 각주 ㉑의 내용을 본문에 채택함.
- 요 17:13 각주 ㉑: ‘안에’ → ‘가운데’
- 행 11:21 각주 ㉔의 내용을 본문에 채택함.
- 롬 2:1 각주 ㉑: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를 넣어서 읽을 수 있음 → 실제 인물
이 아니라 가상의 논쟁 상대를 가리키는 말
- 고전 7:36 각주 ㉑에서: 혼기를 놓칠 때까지 → 혼기가 지날 때까지
- 고전 8:11 각주 ㉑을 삭제함.
- 고전 11:3 각주를 둘로 나누어
→ ㉔ 그, ‘아내’로 번역할 수 있음. ㉔ 그, ‘남편’으로 번역할 수 있음.
- 고후 9:9 각주 ㉑을 삭제함.
- 갈 6:2 각주 ㉔ ‘성취하실 것입니다’ → ‘성취하십시오’
- 딤후 2:26 각주 ㉔에서:
‘사로잡힌 자들도’ → ‘사로잡힌 자들이
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벧전 1:6 각주 ㉑을 삭제함.
- 계 18:13 각주 ㉑ ‘사람의 육체와 영입니다’ → ‘사람의 몸과 영혼입니다’

5. 소제목

- 마 16:1 표적을 거절하시다 → 표징 문제
- 마 22:15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
- 마 26:69 예수를 모른다고 한 베드로 →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다
- 눅 8:40 혈루증 환자와 야이로의 딸 → 하혈하는 여자를 낫게 하시고 야이로
의 딸을 살리시다
- 눅 9:57 예수를 따르려면 →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하여야 한다

- 눅 12:8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 →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여라
- 행 22:6 바울의 회심 이야기 → 바울이 자기의 회개를 이야기하다
17 바울을 이방 사람의 사도로 보내시다 → 바울이 이방 사람의 사도가 된 경위
- 행 26:12 바울의 회심 이야기 → 바울이 자기의 회개를 이야기하다
- 살후 3:1 바램 → 바랍니다

6. 맺음말

이 글은 <표준새번역 개정판>이 그전 판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소개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되었다. 그러나 원고의 분량이 너무 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근거를 논증하는 데에 좀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만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의 번역을 간단히 홍보할까 한다.

주기도문의 번역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이 경주되었다. 주기도문은 예배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번역문은 원문의 의미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며, 우리말 어법에 정확하게 맞아야 하며,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의 정서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표준새번역』의 번역 작업이 시작된 이래로 주기도문의 번역 문제를 놓고 그 동안 여러 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지한 공청회를 가진 바도 있다. 『표준새번역 개정판』은 그러한 모든 노력의 결과들을 최대한으로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번역의 두 가지 큰 원칙은 1) ‘하며’와 ‘하고’의 이중 구조를 살린다는

것 2) ‘하여 주다’라는 표현을 우리말의 비는 말꼴로 유지시키는 것이었다.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라고 번역해 놓으면 ‘주시며’라는 표현 때문에 ‘이름’이 비는 사람의 이름으로 곡해되기 쉽다. 그래서 ‘그 이름’이라고 ‘그’를 첨가하여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 한 것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로 번역하면 이루어짐의 시상이 꼭 과거만을 뜻하느냐 하는 주석인 난관에 빠지게 된다. ‘이루심 같이’로 번역하면 그러한 어려움이 저절로 해결된다. ‘시험’, ‘악’, ‘권세’ 등등의 용어는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그대로 사용했다. 이 주기도문이 널리 통용되어 21세기 한국 교회의 표준이 되는 주기도문으로 빨리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